장만채 도교육감 사전영장 청구

업자 등으로부터 1억 수수·8000만원 횡령 혐의

청렴 이미지 큰 타격 속 행정 공백 우려
교육계 충격… 전남도교육청 반박 논평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업자 등으로 부터 1억원을 받은 장교육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이 2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될 경우 전남도교육청의 행정공백은 물론, 청렴한 진보교육감이라는 자신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영장에 드러난 혐의**=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순천대총장 시절 업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장 교육감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뒤 신속하게 도교육청 압수수색, 계좌추적, 장 교육감 직접조사 등을 실시했다.

검찰은 순천대총장 시절부터 교육감 재직 시까지 장 교육감이 업자나 지인으로부터 모두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뇌물 가운데 일부를 도교육감 선거에 사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또 교과부가 고발했듯 순천대 총장 재직 시 교직원 성과 상여금 17억여 원을 부당 지급하고 대학발전기금에서 총장 대외활동비로 8000만원 정도를 받은 것도 문제가 됐다.

검찰은 8000만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순천대 재임 시 관사의 가족명의 등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배임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순천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고 지난달 28일 전남도교육감 집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 **장 교육감측 반발**=장 교육감은 개인적인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도교육청 논평을 통해 검찰 수사를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검찰이 문제삼은 총장 대외활동비를 비롯한 혐의에 대해 그 사유와 정당성을 조목조목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의사 친구의 순수한 활동비 지원을 정치자금법으로 몰고 있고, 제약업체 뇌물수수 언급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계 충격**=청렴 진보교육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교육계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진보교육감을 옥죄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진보교육단체들로 구성된 '범도민공동대책위'는 25일 광주지검 순청지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 예정이다.

전교조 전남지부 정호윤 대변인은 24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진보 교육감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의 한 간부는 "열악한 전남교육을 살리려는 노력이 검찰 수사로 빛을 잃을까 걱정된다"며 "장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교육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중앙차로→일반차로 전환 공사

24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에서 버스전용 중앙차로를 일반차로로 전환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는 오는 9월 말 완료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거액 도박빚 시달리자…

법인설립 빙자 16억 가로채
현직 변호사 낀 사기단 적발

법인설립 자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채려한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현직 변호사까지 포함된 이들 일당은 모두 강원랜드에 출입하며 생겨난 거액의 도박빚에 시달렸으며, 출국금지 당일 오전 변호사는 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경찰은 24일 "지난 12일 법인설립을 빙자해 이모(47)씨 등 2명에게 16억원을 가로채 해외로 도주하려한 강모(45)씨를 검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하고, 공범인 정모(39)씨와 외국으로 도주한 변호사 최모(34)씨를 추적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씨 등은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알게 돼 도박 및 개인채무로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씨 등에게 법인 설립 자금을 예치시켜 주면 원금과 수백만원의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예치된 16억원을 인출, 달러로 환전한 뒤 외국으로 도주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즉시 강씨 등을 출국금지하고 인출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 강씨를 붙잡고 피해금액 중 15억원을 회수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여객선 나로대교 충돌 승객 20명 부상

24일 오후 2시30분께 고흥군 나로도 인근 해상에서 여수여객선터미널과 삼산면 거문도를 운항하는 228t급 여객선 '줄리아아쿠아호'가 나로도 2대교 교각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여객선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20명이 부상을 입어 고흥 인근 병원 3곳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여수항을 출발해 거문도로 향하던 줄리아아쿠아호는 중간 기착지인 나로항에 입항하려다 선수 왼쪽 부분이 교각에 부딪히면서 1~2m정도 함몰됐으나 자력으로 나로도 항에 입항했다.

사고 당시 이 여객선에는 승객 99명과 승무원 5명 등 모두 10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은 여객선이 나로도 입항을 위해 교각을 지날 무렵 갑작스러운 해무로 5m 앞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470만원 빌려주고 연 700% 살인고리

광주남부·순천경찰, 악덕 사채업자 검거

평범한 주부에게 무려 연 700% 이상의 이자를 뜯어낸 악덕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24일 주부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낸 김모(43)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4일 주부 이모(44)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10일 단위로 20만원씩을 받아내는 등 이씨 등 2명에게 모두 470만원을 빌려주고 연 700.8%의 고리를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돈을 빌린 이씨 등이 이자를 내지 못하자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서 가족들에게 알리고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모두 74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광고, 홍보 명함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경찰도 이날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우모(2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9월 김모(여·35)씨에게 380만원을 빌려주고 두 달간 96만원의 이자를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85명에게 3억원을 빌려주고 연 300%대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구 지역 사채업자인 우씨는 광양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광고 전단지 등을 배포해 대출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 교정서 오토바이 사고 사망

지난 23일 오후 3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정에서 이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천모(27)씨가 몰던 125cc 오토바이가 과속방지 턱을 넘다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천씨가 주변 나무에 부딪히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뇌물·카드'로 흥청망청

전 LH공사 직원, 유흥주점·골프장 등 결제
신협 간부, 아들 여친 임신중절 수술비 요구

건설업자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은 공기업 직원은 마치 자기 카드인양 긁어댔고, 이 건설업자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신협 직원은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허위 건설기계 서류를 담보로 신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려 4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아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송모(43)씨.

그는 뇌물과 법인카드를 건네며 신협 직원, 경찰, 국회의원 보좌관, 공기업 직원 등을 '요리'했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제까지 송씨의 뇌물 리스트에 포함돼 있는 사람은 모두 5명으로, 이들에게 뇌물은 일상이었다.

광주의 한 신협 여신과장인 송모(42)씨는 허위서류를 내민 이 업자에게 55억8900만원을 불법대출해줬으며, 이 과정에서 1억9426만원을 받았다.

송씨가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명목은 골프세트 및 레슨비, 승용차 구입, 소파 및 벽걸이 TV 가전제품 일체 구입, 행사 협찬비, 매제 차량 구입비, 아들 여자 친구 임신중절 수술비 등이었다.

LH공사 보금자리본부 택지설계처 과장으로 근무하다 올 초 퇴사한 이모(41)씨는 재직 당시 업자 송씨로부터 뇌물과 법인카드를 모두 받았다. 이씨는 LH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주와 송씨 회사 공법을 설계에 반영해 주는 대가로 우선 현금 5650만원을 받았으며, 이어 법인카드를 받아 1630만원을 썼다. 이 카드로 그는 유흥주점을 6번 찾았고 한 주에 3번 골프장을 드나든 것은 물론 휴일과 평일에 모텔도 찾았다.

/윤현석기자 chadol@

"왜 업소 그만둬" 남자접대부 폭행

쌍나팔

○…유흥업소 남자접대부 6명이 접대부를 관리하는 '마담'의 허락없이 업소를 그만둔 동료 남자접대부를 납치·감금·폭행했다가 나란히 경찰서행.

○…2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유흥업소 마담인 김모(29) 등 6명은 지난 14일 새벽 0시5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마트 앞에서 한모(25)씨를 납치해 광산구 임곡동으로 끌고 가 "묻어버리겠다"고 겁을 주며 폭행하고 이날 오전 6시30분께까지 서구 치평동 모 유흥업소 방에 가뒀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한씨가 최근 유흥업소가 손님이 줄면서 접대부를 그만두려하자 폭행한 것"이라고 귀띔.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